



2001년 유가공산업 결산



이 정 호
서울유유 상무

우리는 작년 구제역 파동이후 긴장의 연속이었으나 지난 1년 6개월간 체계적인 방역활동으로 9월 19일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구제역 청정국가 지위를 인증받았다.

그러나 영국을 비롯한 유럽에서 발생한 소해면상뇌증(BSE)은 가까운 일본까지 번지면서 축산물소비가 급감하는 등 경제적 피해가 컸다.

원유가격 산정체계 개선은 두차례의 공청회가 무산되어 금년에는 새로운 가격체계 도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원유생산비조사결과 생산비가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발표되자 낙농가들의 불만으로 이어졌다.

이년도 낙농유가공산업은 어느해와 마찬가지로 어수선한 한해였다.

우리는 작년 구제역 파동이후 긴장의 연속이었으나 지난 1년 6개월간 체계적인 방역활동으로 9월 19일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구제역 청정국가 지위를 인증받았다.

그러나 영국을 비롯한 유럽에서 발생한 소해면상뇌증(BSE)은 가까운 일본까지 번지면서 축산물소비가 급감하는 등 경제적 피해가 컸다.

원유가격 산정체계 개선은 두차례의 공청회가 무산되어 금년에는 새로운 가격체계 도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원유생산비조사결과 생산비가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발표되자 낙농가들의 불만으로 이어졌다.

금년도 원유수급은 생산증가가 둔화된 반면 소비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높아 재고분유도 4,000여톤으로 감소하는 등 안정을 유지한 한해였다.

집유일원화사업은 금년도 참여율 80%가 목표이나 11월 현재 67%가 참여하였다. 향후 WTO 도하라운드 등의 영향으로 국내 원유수급의 안정과 집유비용 절감 등이 시급한 점을 고려해 볼 때 대국적인 안목에서 참여확대가 필요한 시기라 하겠다.

한편 지난 11월 9일부터 14일까지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WTO 각료회의에서 시장접근, 관세율 인하 및 보조금 감축 등에 대한 기본적인 방침이 결정되었다. 농업부문의 세부적인 사항은 2003년 상반기까지 협의될 것으로 이에대한 대응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1. 원유수급현황

금년도 원유생산은 전년대비 1% 증가, 소비는 4~5%

정도 증가하여 분유재고는 연말까지 5000여 톤 이내로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과 비교해 볼 때 원유수급은 상당히 안정세를 보여 채고분유가 작년말 대비 70%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유생산은 60여 년만에 찾아온 한파 등으로 생산성이 둔화되었고 그 영향이 6개월 이상 지속되었다. 우유소비는 시유는 물론이고 치즈와 버터의 소비가 상당한 증가를 하였다. 또한 낙농진흥회는 잉여유에 대한 수매와 분유차액보전 그리고 치즈차액보전 등을 통해 수급안정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원유수급문제는 앞으로 유제품 수입정도에 따라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바, WTO 도하라운드 세부협상이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 유제품 수입

유제품 수입량은 전반적으로 주요품목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상당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분유류(혼합분유 제외)는 수입량의 증가가 현저하게 나타났다. 탈지·전지분유 그리고 조제분유는 전년동기대비 2배이상 증가하였다. 특히 조제분유는 그동안 국내산 분유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으나 금년에는 외국산



〈주요 유제품 수입 현황〉

(단위 : 톤, 천\$,%)

구 분	'00.10월 누계		'01.10월 누계		전년대비
	중량	금액	중량	금액	
탈지분유	2,395	3,828	4,307	9,421	179.8
전지분유	358	622	1,160	2,438	324.0
조제분유	791	2,528	1,580	6,104	199.7
혼합분유	22,365	38,010	14,544	29,023	5.0
버 터	762	1,596	870	1,787	114.2
치 즈	23,042	54,127	28,326	71,327	122.9
유 당	11,467	6,747	10,930	6,087	95.3
코코아 조제품	6,018	17,740	5,429	12,553	90.2

제품의 선호층이 늘어나면서 수입량이 전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하였다.

또한 90년대부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치즈는 수입량도 22.9% 증가하였다. 치즈 국제가격은 국내산의 절반수준으로 절대적 비교열위에 있어 수입물량은 해마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혼합분유는 2000년 5월 WTO 패널 패소로 수입량이 급증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국내산 탈지분유와 가격이 비

슷하여 수입량이 전년보다 35% 감소하였다.

WTO와 유제품의 국제가격 등에 따라 향후 치즈와 분유류 등의 수입이 증가세를 보일 것이 전망되므로 국내산 제품의 가격은 물론 품질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3. 원유가격 산정체계 개선(안)

우리나라는 낙농이 시작된 이후 원유의 위생과 안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1977년도에 지방유

에 의한 유대체계 도입 그리고 1993년 6월에는 세균수 및 체세포수에 의한 가격차등제를 도입하여 원유의 질을 향상시켰다. 세균수는 1등급이 90% 수준으로 향상되었고 체세포수도 점차 좋아지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현재보다도 더 위생적이고 안전한 우유를 선호하고 있어 정부와 낙농진흥회는 현재의 가격체계를 개선하여 원유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취지하에 낙농진흥회는 2000년 6월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 원유가격산정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그 결과가 금년 4월에 발표되었다. 낙농진흥회는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각 단체별 대표 6인과 자문교수를 위촉하여 원유가격산정체계개선 소위원회 구성하여 수차례 회의를 하였다.

소위원회의 원유가격산정체계 조정(안)은 전체적으로 현재의 원유가격을 변동하지 않는 선에서 유지방, 체세포, 세균의 등급기준을 재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낙농진흥회는 지난 11월 30일 조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낙농관계자의 의견을 수렴, 2002년중에 시행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었다. 당초 금년도 하반기 중에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두차례 공청회(6

월 12일, 7월 12일)의 무산 등으로 그 시행이 늦어지게 된 것이다.

진흥회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유단백질 가격체계 도입, 시행유예기간설정, 체세포수 등급기준 세분화 및 체세포수 검사주기 단축 등에 대하여 이사회를 거쳐 최종 결정하여 시행하게 된다.

낙농관계자들은 금번 원유가격 체계 조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인식하고 WTO시대에 한국낙농의 생존을 위하여 생산비절감 및 원유품질향상 등의 대응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4. 구제역과 소해면체상뇌증(B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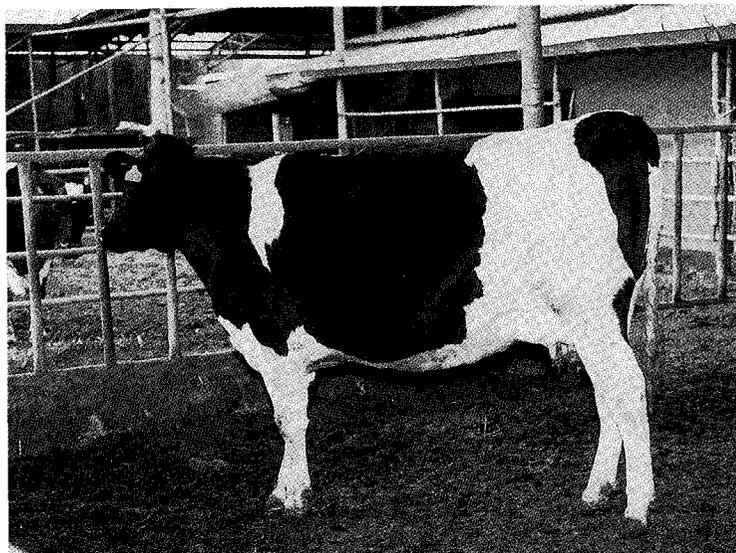
연초 전세계가 구제역과 소해면체상뇌증(BSE)으로 공포에 시달리었다. 영국에서 소해면체

상증이 처음 발병되자 각국마다 쇠고기 소비가 위축되었고 우리나라 역시 소비감소는 물론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발병되지 않았으나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9월 10일 소해면체상뇌증이 처음 발생하여 우리를 긴장하게 하였는데 11월 21일 재차 발생하는 등 아직까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지난해 우리는 구제역으로 진 축산농가와 방역당국의 끊임없는 방역활동과 주의로 더 이상의 발생을 방지하였다. 그 결과 2001년 9월 19일 국제수역사무국(OIA)은 한국의 구제역 발생지역 10km이내의 백신접종 가축에서 1년 이상 재발되지 않아 청정지역으로 지정받게 되었다.

관계당국의 노고와 축산인이 합심한 우리의 저력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방역이란 우리 모두 간과할 수 없는 필수조건이며 서로가 감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5. 젖소검정사업의 활성화

낙농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젖소의 생산성 향상은 시급한 과제이다.

지난 '79년 시작 당시 1백29농가에서 2천3백두를 실시했던 검정사업은 '90년 7백68농가 1만1천두로, 2000년 말에는 3천4백농가 10만7천두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다. 참여율이 50% 이상 되는 낙농선진국에 비해 낮지만 현재 검정사업 참여율이 40%선에 근접해 있어 조만간 50% 수준은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정사업은 점차 인식도가 높아지면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생산자단체 등에서 젖소품평회 및 경매행사를 실시하였다. 작년 구제역으로 중단되다가 지난 9월~10월에 서울우유, 한국종축개량협회, 지역축협 등에서 품평회를 개최하였다. 젖소품평회는 낙농가들의 축제이며 우수한 젖소들을 견학하고 눈높이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젖소개량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01년 9월 현재 검정 성적은 8천2백10kg으로 우리나라에서

도 사상 최고 유량인 3백5일을 기준 2만kg을 생산하는 슈퍼소가 12월중에 출현 될 것으로 예상되나, 일본의 경우는 이미 100두를 돌파했으니 우리의 분발이 요구된다 하겠다.

그러나 척박한 우리의 낙농현실에서 쌓은 오늘의 성과는 값진 것이다.

6. 젖소가격의 상승

젖소가격은 최근 몇 년간 볼 수 없을 정도로 상당한 수준 인상되었다. 젖소송아지 가격은 연초 20만원 내외였던 것이 정부에서 젖소송아지 거세장려금 1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방침을 발표한 이후 현재는 60만원까지 인상되었다.

사실, 작년 구제역 여파와 올 초 소해면체상뇌증(BSE) 영향으로 한우를 포함한 젖소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상반기에 한우가격이 계속 상승하던니 하반기에는 젖소가격까지 기지개를 펴기 시작하여 상승곡선을 나타내어 낙농가의 얼굴을 활짝 피게하였다. 그러나 지나친 가격상승은 낙관적이기 보다 불안한 눈으로 우려하는 것에 유의할 대목이라 하겠다.

7. WTO 도하 라운드

2001년 11월 9일부터 11월 14일까지 카타르 도하에서 제 4차 WTO각료회의가 진행되었다. 금번각료회의는 협상이 종결

된 것이 아니고 협상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장접근, 관세인하, 보조금 감축 등에 대하여 품목별로 세부적인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농업분야 협상기준 세부적인 사항은 2003년 3월까지 앞으로 1년 4개월동안 협의하여 결정하게 된다.

낙농부문에 영향을 미칠 부문은 관세인하와 보조금 감축이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가 또는 선진국 중 어느 군에 속하느냐에 따라 미치는 정도가 달라질 것이다. 관세인하는 WTO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된 것인지 아직 결정된 것이 없지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UR협정 연장선에서 결정되도록 해야한다. 보조금 감축은 농업 전반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인 점을 고려하여 현재 낙농에 할당되는 보조금 수준만큼은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WTO 도하라운드에 의한 제도적인 변화 이외에 우리 나름대로의 대응방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는 그동안 UR 이후 외국의 유제품이 개방된 상태에서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지만 그다지 큰 효과를 얻지 못하였다. 따라서 도하라운드의 세부적 사항이 결정되기까지는 시간이 있는 만큼 대응방안을 조속히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필자연락처 : 02-490-8005〉